

프로야구 1군 선수 연봉 평균 2억 돌파

지난해보다 2300만원 올라
한화 3억 3241만원으로 최고

한국야구위원회(KBO)는 11일 2016 KBO 소속선수 등록인원과 연봉자료 등 각종 현황을 발표했다.

KBO 리그 10개 구단은 지난달 31일 감독 10명, 코치 230명, 선수 616명 등 총 856명의 선수단 등록을 마쳤다.

KBO 리그 선수들의 연봉 규모는 나날이 커져가고 있다. 지난해 경신한 연봉 관련 기록들을 모두 새로 썼다.

1군 선수들의 연봉이 확연히 뛰었다. 구단별 상위 27명의 평균연봉은 역대 최고액인 2억1620만원으로 조사됐다. 이는 지난해 역대 최고액인 1억9325만원에서 2295만원이 오른 것이다. 4억원 이상 고액 연봉자는 무려 52명이다.

1군 리그로만 운영했던 프로야구 출범 첫 해(1982년) 평균연봉인 1215만원과 비교해볼 때 올시즌 KBO 리그 평균연봉은 무려 18배 가까이 상승했다고 볼 수 있다.

각 구단별로는 한화의 1군 평균연봉이 3억3241만원(28.8% 인상)으로 KBO 리그 사상 처음으로 3억원을 넘어섰다. 삼성과 롯데가 각각 2억7222만원, 2억3585만원으로 뒤를 이었다.

선수단 전체로 봤을 때도 상승세다. 신인과 외국인 선수를 제외한 526명 평균연봉은 1억2856만원이다. 역대 최고이던 지난해 1억1247만원을 넘었다. 전년 대비 상승폭은 12.5%로 1군 상승폭(11.9%)보다도 크다.

역시 한화가 평균연봉이 1억7912만원으로 가장 높았다. 삼성 1억5464만원, 롯데 1억3313만원 순으로 나타났다. KBO 리그 2



한국야구위원회(KBO)는 2016년 소속선수·등록인원 연봉자료 등 각종현황을 발표했다. 한화에 김태균이 연봉 16억원으로 지난 시즌에 이어 올해에도 연봉 1위를 차지했다.

년차가 된 kt는 평균연봉이 지난해 5273만원에서 58.7% 오른 8369만원으로 가장 높은 인상률을 기록했다.

또한 지난해 140명이었던 역대 연봉 선수 숫자는 올 시즌 148명으로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개인 부문에서도 한화의 투자가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지난 시즌에 이어 한화 김태균이 연봉 16억원으로 1위 자리를 굳건히 지켰으며, 2위는 KIA 윤석민(12억4500만원), 3위는 한화 정우람(12억원)이다.

특히 정우람은 지난해보다 무려 8억원이 올랐다. 두산 장원준이 기록한 역대 연봉 최고 인상금액(6억8000만원)을 1년 만에 갈아치웠다.

외국인선수 중에는 한화 에스밀 로저스가 22억8000만원(계약금 포함)으로 최고의 자리에 올랐다.

국내선수 포지션별 연봉 1위는 투수 윤석민, 포수는 롯데 강민호(10억원), 1루수 김태균, 2루수 한화 정근우(7억원), 3루수 SK 최정(10억원), 유격수 두산 김재호(4

1천만원)이며 외야수는 LG 박용택과 이병규(이상 8억원), 지명타자는 삼성 이승엽(10억원)이다.

NC 나성범은 올 시즌 3억원을 받아 5년 차 최고 연봉을 기록했다. SK 김광현은 8억5000만원으로 10년 차 최고 연봉을 경신했다.

2016 KBO 리그 10개 구단 선수들은 다음달 8일부터 열리는 KBO 시범경기를 통해 만나볼 수 있다.

/김민근기자

프로야구 등록선수 '평균' 은 182.7cm · 86.2kg · 27.4세

한국야구위원회(KBO)는 11일 2016 KBO 소속선수 등록인원과 연봉자료 등 각종 현황을 발표했다.

KBO 리그 10개 구단은 지난달 31일 감독 10명, 코치 230명, 선수 616명 등 총 856명의 선수단 등록을 마쳤다.

각종 통계치를 보면 프로야구 원년인 1982년과 비교해 성장한 KBO리그의 규모를 확연히 느낄 수 있다.

팀당 80경기를 치렀던 원년과 다르게 지난해부터 144경기 체제로 운영이 되고 있다.

1군 선수들의 연봉(구단별 상위 27명)은 평균 2억1620만원으로 원년 1215만원과 비교해 18배 가까이 성장했다.

그 뿐만이 아니다.

출범 1982년 대비 6.2cm · 12.3 kg · 1.4 세 늘어

선수들의 체격 조건 또한 달라졌다. 원년 프로야구의 '표준' 은 키 176.5cm에 몸무게 73.9kg였다. 2016시즌 평균은 신장에서 6.2cm 성장한 182.7cm, 몸무게에서 12.3kg 늘어난 86.2kg이다.

평균 키는 2014년(182.8cm) 이후 정체했지만 몸무게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 프로야구에 붙었던 웨이트트레이닝 열풍을 입증하고 있다.

최장신 선수는 두산 장민익(207cm)이며, 두산 박성민과 삼성 이상훈(171cm)은 최단신 선수로 등록됐다.

최중량 선수는 롯데 최준석(130kg)이다. 2011년의 이대호와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

다. 가장 가벼운 선수는 한화의 신인 강상원(64kg)이다. 역대 최고 기록은 1992년 태평양 돌핀스의 김성갑(60kg)이다.

선수들의 평균나이 또한 원년 26세에서 1.4세 늘어난 27.4세다. 철저한 자기 관리로 젊은 선수들과의 경쟁에서 살아남는 베테랑들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다.

올 시즌 최고령 선수는 1월 31일 등록일 기준으로 만 41세 8개월23일의 KIA 최영필이다.

최연소 선수는 만 18세 1일의 LG 김주성으로, 최영필과 무려 23세 8개월 이상의 차이가 난다.

구단별로는 한화가 29.4세로 가장 나이가 많았고 넥센이 25.6세로 가장 젊었다.

한편 선수 616명 중 신인은 61명, 외국인 선수는 29명이다.

포지션 별로는 투수가 305명으로 전체 선수 인원의 약 49.5%를 차지했다.

내야수 151명(24.5%), 외야수 110명(17.9%), 포수 50명(8.1%) 순이다.

616명 중 순수 오른손잡이인 우투우타가 392명으로 가장 많았다.

좌투좌타 128명, 우투좌타 86명이 뒤를 이었다.

두산 국제성, 삼성 정광운, 넥센 서동욱 등 10명이 스위치히터(우투우타)로 등록됐다.

/김민근기자

이상화, 세계선수권대회 500m 정상 탈환 나선다

빙속 여제 이상화(27·스포츠포토)가 지난해 놓친 세계선수권 대회 500m 정상 탈환에 나선다.

이상화는 오는 13일(한국시간) 러시아 콜롬나에서 열리는 2016국제빙상연맹(ISU) 스피드스케이팅 세계종목별선수권대회 여자 500m에 출전한다.

이상화는 지난 2012년과 2013년 이 대회 여자 500m 정상에 올랐다. 세계선수권이 열리지 않은 2014년을 건너뛰고 지난해 아시아 선수로는 최초로 대회 3연패에 도전했다. 그러나 컨디션 난조로 5위에 그쳐 챔피언 자리를 내줬다.

정상에서 내려온 이상화는 '절치부심' 했다.

올 시즌 월드컵부터 컨디션을 끌어올렸다. 1~4차 대회에 출전, 총 8개의 금메달 중 4개를 목에 걸며 건재함을 알렸고, 지난 2일 실전 감각을 익히기 위해 출전한 제97회 전국동계체육대회에서는 38초10의 기록으로 가뿐히 우승을 차지했다. 가장 강력한 라이벌로 꼽히는 상대는 중국의 장훙이다. 이상화가 빠진 5차 월드컵에서도 금메달을 추가해 랭킹 1위로 올라섰다.

남자 '장거리 간판' 이승훈(대한항공)은 이번 대회 4개 종목을 소화할 예정이다.

여자부에서는 김보름(한국체대)이 3000m와 매스스타에서 메달을 노리고 있다.

/김민근기자

박병호·김현수·오승환 USA투데이 선정
올해 알아줘야 할 선수 100인 명단 올라

박병호(30·미네소타)와 김현수(28·볼티모어)·오승환(34·세인트루이스)이 USA투데이 선정 '2016시즌 메이저리그에서 알아줘야 할 선수 100인'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1997년부터 매년 이같은 명단을 발표해 온 USA투데이는 11일(한국시간) 박병호를 9위에 랭크하면서 "박병호는 한국 프로야구에서 지난 두 시즌 동안 105개의 홈런을 쳤다"고 설명했다. 이어 "미네소타는 박병호에게 포스팅 비용을 포함해 2500만 달러를 투자했다"며 "팀을 그를 지명타자로 활용할 것이고 그가 지난해 기록한 53개의 홈런 중 절반만 쳐도 굉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18위에 오른 김현수에 대해서는 "2년간 700만 달러의 계약을 맺은 그는 볼티모어 좌익수 자리와 1번 타수에 안정감을 안겨줄 선수"라고 평가했다.

또 "김현수는 타순에 필요했던 좌타자 라인업을 채워주는 동시에 높은 확률의 홈루율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전망했다.

아울러 USA투데이는 "파이널 보스" 오승환은 한국 최고의 클로저 중 한 명으로 평가받은 인물"이라고 밝히며 "그는 일본 리그를 휩쓸고 메이저리그로 넘어왔다"고 소개했다.

/김민근기자

손흥민 "리그 우승 기대"…매 경기 마다 집중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EPL) 토트넘 핫스파에서 뛰고 있는 손흥민(24)이 리그 우승에 대한 기대감을 내비쳤다.

손흥민은 지난 10일(한국시간) 토트넘 홈페이지에 게재된 인터뷰에서 "우리는 이번 시즌 특별한 기회를 잡았다"고 말했다.

토트넘은 25경기를 치른 현재 13승9무3패(승점 48)로 리그 2위를 질주 중이다. 선두 레스터 시티(15승8무2패·승점 53)와는 승점 5점차다.

손흥민은 "지금은 매 경기에 집중하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는 강한 정신력을 보유하고 있고 경기에 나설 모든 준비를 마친 상태"라면서 현재 전력에 대한 강한 자신감을 드러냈다. 토트넘은 경기력 뿐만 아니라 그의 빠른 적응에도 주목했다. "손흥민은 지금 확실히 스포스에서 빛나고 있다"면서 그가 팀에 훌륭하게 흡수됐다고 칭찬했다.

/김민근기자



LetsRun FARM 장수 (구.장수육성목장)

우리나라 말 산업을 견인하는 전초기지입니다.

LetsRun FARM 장수 는

경주마 및 승용마를 아우르는
명마생산의 메카입니다.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천연의 목가적 풍경과
다양한 말 문화 체험프로그램으로
최고의 힐링 쉼터를 제공합니다.

명마 생산과 육성의 메카 LetsRun FARM 장수